

열정 하나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만학도



Q.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정현자 :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만학도로서 올해 3학년에 재학 중인 19학번 정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귀순 :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만학도 최귀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공부를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정현자 :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세대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육남매의 장녀로서 제가 공부해야 할 나이에 학업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결혼을 해서 저의 아이들의 대학 교육을 모두 끝내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있게 되자, 어느 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항상 가슴속에 있었던 배우고 싶다는 꿈을 늦게나마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에서 설립한 성인 여성들을 교육하는 도립여성 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저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흔쾌히 허락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귀순 : 저는 6.25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되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저의 아이들도 사회인으로 내보내다 보니 이제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Q.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불안하지는 않으셨나요?

정현자 : 제가 다시 시작한 공부는 중학교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거나 두려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고 다 같이 배우시는 분들이 모두 같은 입장이다 보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배우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용기 내어 감히 대학 입학에 도전했습니다.

최귀순 :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Q.여러 학과 중 한국어문학과와 역사문화콘텐츠학과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현자 : 저는 어려서부터 국어 과목과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편적인 국문학과보다 좀 더 교육의 폭이 넓은 한국어문학에 관심이 있었으며, 세계화 시대에 사는 이즈음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문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최귀순 : 저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역사 하나라도 배우는 게 저의 나이 때에는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역사문화콘텐츠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한국어문학과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학과가 있으신가요?

정현자 : 이 질문에는 부끄럽게도 제가 좀 더 나이가 젊었다면 다른 분야에도 도전해 보고 싶은 용기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의 입장으로는 그런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도전하게 된다면 현재 한국어문학과와는 전혀 다른 분야인 한식조리학과와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서 제가 주부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우리 한식 문화를 접목해서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귀순 :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른 학과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Q.대학에 입학하시기 전 꿈꿔오셨던 대학 생활이 있으셨나요?

정현자 : 사실은 중고등학교 6년이란 기간을 너무 여유 없이 바쁘게 지나왔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오면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대학생으로서 여유롭게 꿈을 꾸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 막상 현실은 꿈을 꾸고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꿈을 꿀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가장 부러운 것은 '젊음'이었습니다. 저처럼 부모가 되고 젊음이 지나가 버리면 꿀 수 있는 꿈이 그다지 많지 않고 가졌던 꿈도 접어야만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께서는 꿈을 가질 수 있을 때 웅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최귀순 : 처음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캠퍼스도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아쉬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Q.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학업이 힘들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셨나요?

정현자 : 늦은 나이에 어려운 대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모든 과목이 다 어렵습니다. 이해력도 부족하고, 기억력도 따라주지 못하고, 하지만 느끼게나마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귀순 : 저 또한 힘든 일의 연속이었어요. 공부를 해도 기억력이 따라주지 못하고 항상 어렵고 힘듭니다.

Q.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시면서 힘들었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어떻게 견디셨나요?

정현자 : 공부를 시작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만 하는 고비도 여러 번 있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보살핌과 도움으로 지금의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가족들의 이해와 희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귀순 : 공부를 시작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 '참고 견뎌야지'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Q.최근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아쉬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정현자 : 공부는 어렵지만 매일 학교에 나와 젊은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도 보고 같이 학교생활 하는 시간이 즐거웠었는데 그런 일상들이 멈춰버린 상황이라서 아쉬움이 크

지만 모두 같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니까 속히 정상적인 궤도를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귀순 : 현재 비대면으로 인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학우들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강의실에서 학우분들의 얼굴을 보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한 학생들이 아니면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Q.다른 학우분들과 수업을 같이 들으시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현자 : 학우분들과 학습 분위기도 좋았고 조별과제를 할 때도 학우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도움과 배려 덕분에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귀순 : 같은 강의실에서 학우분들을 봤을 때 아는 체를 하게 되면 싫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에게 다가가기 쉽지가 않았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다른 학우분들은 소곤소곤 이야기하지만 저는 귀가 잘 안 들리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수업을 들을 때도 교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서 맨 앞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Q.대학에 졸업하시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정현자 : 늦은 나이에 배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에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최귀순 :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학업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여행을 다니며 생활하고 싶습니다.

Q.마지막으로 만학도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정현자 : 엘리노어 루즈벨트 인권 위원장 영부인에게서 하신 말씀 중에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그것이 오늘을 'present' 바로 '현재'라고 부르는 이유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만학의 꿈을 가지신 분들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교육의 장은 언제든 환영하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최귀순 : 저의 생각으로는 만학도들은 공부의 꿈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도전을 하셔서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하 기자(minha37@jj.ac.kr)
장채원 기자(jcw2454370@jj.ac.kr)